

## 기술력 입소문 매출 꾸준히 신장

### 창립 10주년 맞아 재도약 다져



김 은 갑

(주)솔팩 대표이사

기업에서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마케팅이 아닌 업계의 입소문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업은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사후관리가 뛰어나거나 다른 기업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음이 분명하다.

INNO-BIZ 기업이자 벤처기업인 (주)솔팩(대표이사 김은갑)은 기술을 바탕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자동포장기계를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는 솔팩은 지난 1996년 5월 1일 창업하여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기업으로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심하여 발전하고 있다.

솔팩은 주로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제약, 제과, 제당 분야 및 화학, 유지, 농약분야에 필요한 포장기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다져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서남 아시아,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약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내실있는 중소기업이다.

주요 생산 기계 가운데 분말, 과립, 액체, 정제 및 캡슐, 각종 파우치는 자동 사췌(SACHET)포장기계와 자동 로타리 파우치(POUCH) 포장기계로 미려하게 포장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약 700여대를 판매한 실적을 갖고 있다.

(주)솔팩은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다수 획득하였고 보다 폭 넓은 ABC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매년 매출대비 7~10%를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므로써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 (주)솔팩 창립 10주년 기념식

서는 보기드문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이다.

지난해에는 수출 백만불을 포함해서 매출 35억을 달성하였고 올해에는 1백80만불 수출을 포함하여 매출 50억을 목표로하고 있다.

솔팩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건강한 생각과 정직한 마음가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충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고객들에게 솔팩을 더 알리기 위해 KOREA PACK2007에 참가하여 최신 기종을 선보일 계획이며,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는 오는 6월에 열리는 RUSPACK과 10월에 ESTANBUL/INDIA

전시회에 참가하여 에이전트 확보와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펼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전천후 마케팅을 위해 본사 사무실을 외국 BUYER를 언제든지 초청하기 위하여 SHOWROOM과 회의실을 꾸며 놓았다.

또한 현장 방문을 원하는 유저들을 위해 공장 전체를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CLEAN 사업장으로 만들어 모든 사고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유저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품질

경영 인증 ISO9001/2000과 환경 경영인증 14001/ 2004를 획득하였고 유럽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품질과 안전인증인 CE 인증도 받았다.

새로운 기계 개발과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솔팩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는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안자에 대한 포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향후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

# SOL PAC

고 있으며, 춘계 야유회, 추계 운동회 등 단합대회를 가짐으로써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경영혁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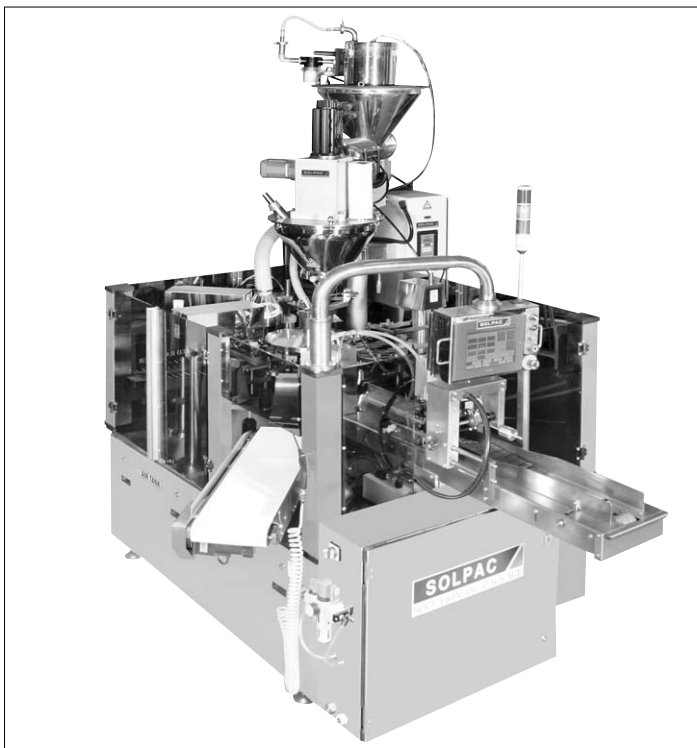
의식 개혁운동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쿠폰제 경영컨설팅을 전직원이 받고 있다.

임직원 누구든지 새로운 분야, 새로운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지난해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는 장기 근속자들에게 근속상장과 부상을 주어 격려했으며 공로가 많은 임원과 우수하고 모범적인 직원에게 공로상과 우수모범상을 수여해 사기를 진작시켰다.

협력업체들과는 분기모임을 가짐으로써 보다 질 좋은 가공품을 생산하는데 함께 관심을 갖게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수출에 도움을 주는 국내외 대리점과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적기에 제공하는 기성품 업체와도 친선 모임을 갖을 계획이다.

정성 드린 자본재, 희망 담아 세계로' 라는 (주)솔팩의 슬로건과 같이 우리들이 만드는 포장기계 하나하나에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멋진 자본재를 만들고 있으며, 만들어진 우수 자본재에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지구촌 모든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솔팩 자동포장기계



▲ (주)솔팩 임직원 단합대회

24년간 오직 포장기계 연구 개발에 몰두 해온 김은갑 사장은 85년 기업을 인수한 후 97년 IMF 시작과 함께 국내 경기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해외에 눈을 돌려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만해도 수출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무작정 카탈로그만 들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 직접 자사 기계를 수출하기 위한 눈물겨운 홍보가 시작됐다.

해외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수출길을 열기 위한 노력으로 97년 7억달러라는 처녀 수출을 기록하면서 희망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매년 꾸준한 신장을 보이며 올해에는 180만달러를 수출목표로 삼고 있지만 1사 분기 호조를 이어간다면 이 수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 사장은 기술력을 높여 나갈 인력이 없어 중소기업의 앞날에 대한 근심을 털어놓았다.

솔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주나 유럽의 선진기술을 습득, 우리 실정에 맞는 기계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길 뿐이라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기까지 쉬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좋은 기계를 만들어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보람”이라는 김 사장은 시간이 날 때면 산을 찾는다.

등산 마니아로 암벽등반, 백두대간 종주 등 재 충전을 위해 산을 찾고 정신과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주)솔팩은 세계 최고봉이라는 기술기업으로 우뚝서 2010년 천만불을 수출하는 우량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